

Ethylene, 820달러로 4주 연속 상승

FOB Korea 815-825달러로 10달러 올라 ... PE 생산확대로 Spot 감소

Ethylene 가격이 7월2일 FOB Koreaa 톤당 815-825달러로 10달러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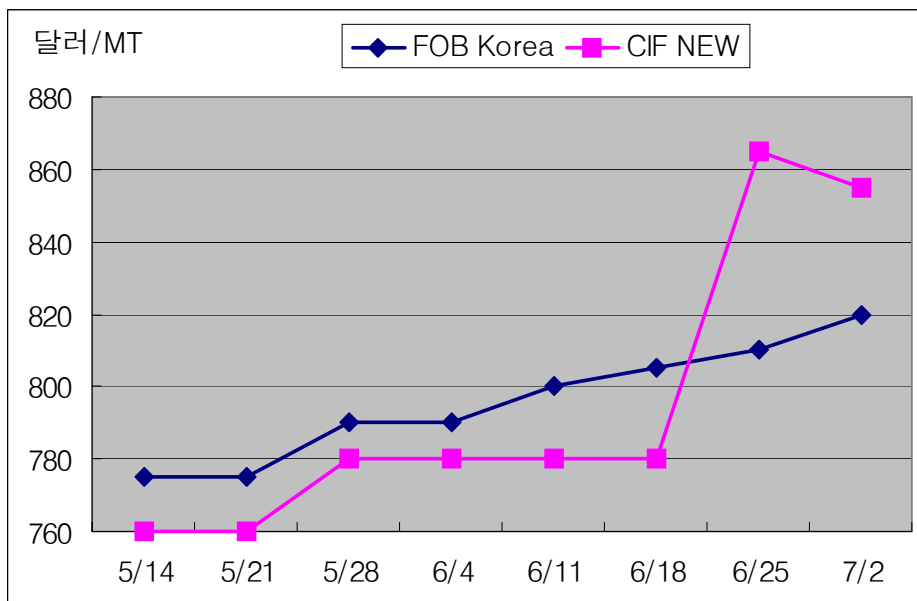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타이완 및 중국의 에틸렌 크래커들이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상태에서 PE 생산을 확대하는 기조를 보임에 따라 수급이 타이트해 상승세를 지속했다.

아시아의 에틸렌 생산기업들은 6월까지 PE 가격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PE를 생산하기 보다는 에틸렌을 Spot 시장에 내놓는 정책을 사용했으나 PE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자 PE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PE 가격이 HDPE는 CFR China 톤당 900달러, LLDPE는 890-9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Chandra Asri는 FOB Merak 톤당 820달러에 판매한 반면, 타이의 NPC는 PE 생산확대에 따라 에틸렌 Spot 판매를 중단했다.

Eth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7월2일 CIF NWE 톤당 850-860달러로 10달러 하락했다.

<화학저널 2004/07/07>